

제9장 현 대

1. 광복과 정부수립

1) 8·15광복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자 그동안 일본의 강점하에서 갓은 고초를 겪던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15일 감격스런 광복을 맞이하였다. 광복에 앞서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미·영·중의 연합국 대표들은 중국의 제안으로 2차 대전이 끝나면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시킨다는 결의를 하여 처음으로 한국 독립이 국제적으로 약속되었으며, 이어 1945년 포츠담 선언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민족의 광복은 이러한 연합국의 승리와 독립 약속이 있어서도 가능했지만 우리 민족의 끈질긴 독립운동의 결과도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아침 ‘금일 정오 중대방송, 1억 국민 필청(必聽)’이라는 특별방송이 예고되었고, 8월 15일 정오가 되자 예고된 특별 방송을 통하여 일왕 히로히토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왔다.

“짐은 깊이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상에 감하여 비상조치로서 시국을 수습하고자 여기 충량한 그대들 신민에게 고하노라. 짐은 제국정부로 하여금 미·영·소·중 4국에 대하여 그 공동선언을 수락할 뜻을 통고하게 하였다.”

이러한 항복결정을 알리는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자 일인들은 통곡하였고 우리 민족은 환희의 물결 속에 파묻혔다. 대천지역에서도 신시를 중심으로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일제의 항복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2)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국의 독립은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키다'는 미·영·중 수뇌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외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독립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곧바로 독립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38선을 경계로 미·소군이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함에 따라 한반도는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와중에서 신탁통치 문제를 겪으면서 찬탁과 반탁의 좌·우익 대립이 극심해져 사회는 혼란스러웠다.

1947년 미·소 양국은 교섭을 통하여 한국 독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렬되고, 한국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유엔에서는 한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기로 하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북쪽에서의 소련의 거부로 선거가 가능한 남한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통하여 정부를 수립할 것을 유엔 소총회에서 결의하였다. 이에 이승만 등은 남한만의 총선거를 지지하였으나, 김구·김규식 등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는 남북한의 영구 분단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위해 평양에 가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승만은 북한의 의도를 불신하고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여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유엔의 결의를 지지하였으며 마침내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였으나 부일협력자(附日協力者)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하였다. 선거결과 무소속 85명, 대한독립촉성회 55명, 한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 기타 정당·사회단체 19명이 당선되었다. 이어 제헌국회를 구성한 후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제정하고 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독립된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서 보령지역의 초대 제헌의원으로서 당선된 사람은 대동청년단(大同青年團) 소속의 보령군 대천면 대천리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42세(1907년생)의 임석규(林奭奎)였다. 임석규는 임업기술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대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당시 출마한 사람은 임석규를 비롯하여 7명이었다. 임석규는 서천 출신으로 이리농고를 졸업하고 충청남도 도립원기술원(忠淸南道 道林原技術員)을 역임했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보령군지부 부위원장과 대동청년단 보령군단장을 역임하였다.

3) 농지개혁

정부수립 이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령지역의 농촌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농지개혁법이였다.

해방 이후부터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에 의한 토지소유를 실천하려는 직접 생산자인 농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진주한 미군은 1945년 10월 5일 미군정 법령 제5조에 의하여 소작료는 1/3로 제한하고, 지주의 자의적 소작권 해제 금지, 소작 계약 등본 제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토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보령에서는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관행대로 50:50의 소작료가 유지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일제의 적산농지(敵産農地)에 대한 요구가 강하여 미군정의 1/3소작료제와 같은 소극적 정책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이에 미 군정은 일본인에게 강탈당한 토지는 한국 농민에게 이양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해방 후 신한공사에서 관리하던 일본인 농토는 남한 경지면적의 13%를 점유했다. 1948년 법률에 의해 토지의 연평균 생산량의 3배를 연간 20%씩 15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귀속농지의 분배를 규정했다. 이 귀속농지는 1951년 귀속농지조치법에 의해 일반농지와 같이 연평균 생산량의 1.5배를 5년 상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보령지역에도 내항동 성업사 간척지 등의 농지가 법령에 정한 대로 분배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되어 1949년에 농지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은 많은 갈등 속에서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정부가 지주의 토지를 유상매수하여 농민들에게 유상분배하는 형식으로 농지개혁이 진행되었지만 6·25로 인하여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 움직임이 5년여 계속되는 동안 지주들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농지의 방패, 소작지의 위장 자영화 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자작농을 육성한다는 개혁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었다. 이때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평년작 주생산물 생산량의 1.5배를 5년 동안 분할 상환해야 했는데, 상환곡 납부는 1950년 추곡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6·25전쟁, 농지가격의 상환 부진, 국가재정 악화로 지주에 대한 보상도 부진하게 되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 6·25전쟁과 우리 고장

1) 공산군의 남침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1948년 9월 9일 북한에서도 이에 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됨으로 남북한에 2개의 정부가 수립되어 한반도는

공식적인 분단의 길로 들어섰다.

결국으로는 평화공세를 취하면서 남침의 기회를 노리며 전쟁 준비를 하던 북한은 한반도를 미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미국의 소위 애치슨라인에 고무되어 1950년 6월 25일 기습남침을 감행하였다.

불의의 기습을 받은 대한민국은 병력과 장비의 현저한 열세 속에서 서울이 함락되고 작전상 낙동강전선까지 후퇴하였다. 서울에서 후퇴하여 임시수도가 대전에 마련되고 금강방어선이 구축되고 이어서 부산으로 임시수도가 옮겨지고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는 등 주전선이 경부축이었기 때문에 국군 주력과 공산군 주력은 경부축에 몰렸다.

따라서 서해안 쪽의 우리 보령에는 적과의 큰 충돌은 없었다. 공산군의 작전에 의하면 방호산 휘하의 인민군 6사단이 해주에서 개성을 거쳐 서울 외곽을 소개하고 한강을 건너 대전으로 진격하게 되었기 때문에 북한 6사단 주력이 천안(7월 8일) 공주(7월 11일) 대전(7월 21일)으로 진격하고, 6사단의 나머지 부대가 충남 서해안을 따라 들어와 홍성(7월 12일)을 거쳐 큰 지장 없이 7월 13일경 대천을 점령했고, 이어서 전라도 지역으로 진격해 갔다.

2) 철도경찰대의 주산전투

6·25사변 중 우리 보령지역으로 남하한 인민군은 제6사단이다. 인민군 6사단의 전신은 중공 166사단인데, 1942년 관동군에서 도망한 한국인을 모아 편성한 사단으로 항일전을 경험한 부대였다. 이런 경력의 중공 166사단이 1949년 7월에 신의주로 이동, 여기서 800명을 징집하여 인민군 6사단으로 편성되었다. 사단장은 팔로군 출신의 방호산(方虎山)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인민군 6사단은 제14연대와 제3경비여단의 병력 등 6,800명의 병력으로 웅진반도를 기습하였고, 주력은 개성으로 진격하여 점령하였다. 이어 6월 28일에는 김포 북방에서 한강을 도하하여 29일 김포비행장을 점령하였고, 이어 7월 3일 인천을 점령, 7월 4일 아침에는 인민군 제1·제3·제4사단과 함께 영등포에 집결하여 대전·부산을 따라서 공격할 준비에 착수하면서, 천안까지는 제4사단의 뒤를 따라 남진하였다.

천안 점령(7월 8일) 후 인민군 6사단은 군산→전주→순천→진주→부산의 진격로에 투입되어 충남 서해안 지역을 지나게 되었다. 7월 12일 홍성을 통과하고, 이어 군산을 점령한 후 7월 20일 전주를 공격하였다. 이 사단을 저지하고 있던 국군부대는 패전한 7사단뿐이어서 저지부대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인민군 6사단은 계속 진격하여 7월 23일 광주를 점령했다.

인민군 6사단이 흥성을 점령한 이후 7월 13일 보령경찰서에 후퇴 명령이 내려져 경찰 들은 배를 타고 군산으로 갔으나 군산의 해병대가 다시 장항으로 갈 것을 명령하여 7월 14일 장항에 가서 다시 비인으로 가라는 헌병사령관의 명령을 받았다. 충남서부 7개 경찰서 병력과 철도경찰대 병력이 비인에 집결했다. 7월 15일 아침 “인민군이 보령 남포면 북정자 부근에서 목격되니 남하를 저지하라”는 명령이 경찰에 내려졌다.

그리하여 비인으로 출발한 경찰은 정철모 총경이 지휘하는 철도경찰대 75명을 선두로 오후 3시경 주산면 지서에 도착하여 인원 점검을 하던 중 인민군 공격을 받아 6명이 전사하고 10명이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된 10명은 웅천 인민위원회에 인계되었다. 포로 들은 웅천지서에 감금되었다가 7월 27일 오후 2시에 이어니재 고개에서 총살당하였다. 인민군이 주산면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주민의 말을 경찰이 그대로 믿고 방심해서 당한 사건이었다. 나중에 확인된 결과 그 주민은 좌익 치안대원으로 공산주의자였다고 한다.

3)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해방공간 시기에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는 속에서 보령지역에서도 좌익계(남로당)의 준동이 있어 그러한 조짐들이 나타났다. 1945년 9월 하순경 장항의 공산주의자 수백 명이 대천 장날에 올라와 시가행진을 하였고, 이때 시장 상인들과 충돌했으며, 당시 경찰서를 지키고 있던 경찰이 시위대를 폭도로 간주, 발포하여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것이 보령지역에서의 최초의 남로당 활동이었다.

1946년 봄에는 대천 동대교 옆의 매립된 대천천 유역에서 남로당 대회가 열려 김일성과 스탈린 만세를 부르는 야외 군중집회가 두 차례 있었다. 이 집회 주동자는 남로당 대천 군당위원장이었고, 이후 남로당은 지하활동으로 들어갔다.

1946년 10월 대구 폭동 등 좌익의 폭동과 소요가 급증하던 때 청소면 지서 습격사건, 미산면 도화담 지서 경비전화 절단사건, 주포면 진당산 봉화사건, 대천농고 인공기 계양 사건 등이 있었다. 이후 공산주의자에 대한 검색으로 10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렇게 해방공간에서 좌익이 준동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과거 좌익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자수시켜 우익으로 전향시켜 우익체제를 강화하고, 이 좌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목적으로 보도연맹(保導聯盟)을 만들었다. 본래 ‘보도(保導)’는 ‘보호하고 지도 한다’라는 의미이지만, 보도연맹에서의 ‘보도’는 좌익에게 전향기회를 준다는 용서와, 신분을 보장 한다는 약속을 포함하는 의미였다.

충청남도의 보도연맹 결성은 1949년 12월 27일 대전에서 있었고, 보도연맹 보령지부는

1950년 1월 26일 보령경찰서에서 자수자 162명의 참석과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장 참석하에 결성식을 가졌다.

이 보도연맹은 결성 당시의 목적과는 다르게 공산군의 남침으로 정부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모두 좌익으로 간주되어 학살당하게 된다. 보령 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이 있었고, 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은 보령시 대천동 소재 보령농협창고에 수용되어 있다가 이어나재로 끌려가 집단학살당했다. 그 장소는 현재 경찰묘지 북쪽 골짜기인 알미골과 깊은골로 추정된다. 학살 날짜는 보령에 인민군이 들어와 경찰이 철수하기 직전인 1950년 7월 10일에서 12일 사이였을 것으로 보이며, 1950년 1월 26일에 있었던 보도연맹 보령군지부 결성식에 참석한 자수자가 162명이었다면 최대 162명 정도일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등급 분류에 의하여 학살에서 제외될 수 있었을 것이고, 예비검속에 불참하거나 의도적인 도피, 현장 생존 등으로 실제 학살당한 수는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모습의 보복학살을 낳았다. 1950년 7월 15일 보령 주산전투에서 철도경찰 10명이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혔다. 포로들은 웅천면 인민위원회에 인계되고, 인민위원회 소속 좌익 치안대가 1950년 7월 27일 오후 2시 이어나재에서 이 포로들을 총살시켰다. 이어나재가 보령지역 보도연맹원이 학살된 장소인 것을 생각하면, 좌익치안대가 포로였던 철도경찰을 같은 장소에서 학살한 것은 보복학살이라는 의심을 더욱 짙게 한다.

4) 공산군 점령기의 상황

공산군이 보령을 점령한 후 보령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좌익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군에는 군인민위원회, 면에는 면인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군마다 설치된 정치보위부에서 우익인사를 체포하여 분류하였다. 민주여성동맹이 설치되고, 경찰서는 내무서, 파출소는 분주소로 명칭이 바뀌어졌다.

전쟁 기간 중 살해된 사람과 인민군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 중 보령지역에서는 피살자 47명을 포함하여 피랍자가 490명에 달한다. 인민군 남한 점령 기간 중 인민군은 점령지역에서 의용군을 모집했다. 초기에는 남로당계와 지방 좌익의 자발적 지원이 많았고, 이에 보도연맹원들이 모병 대상이 되어 우선 선발되었다. 의용군 모집 대상은 17세~37세까지의 남자였다. 처음에는 동리 단위로 모집하다가 나중에는 거리에서 무조건 잡아가지도 했다. 8월말 이후에는 가가호호 수색하여 체포하는 방법도

동원되었다. 내무서원과 인민군 등이 한 때가 되어 새벽 2-3시에 집을 수색해서 청년들을 붙들어 가기도 했다.

앞에서 말한 보령지역 피랍자 490명을 분석해 보면 1950년 8월 초부터 피랍 인원이 점점 증가하다가 8월 15일 하루에 절반이 넘는 271명으로 급증했다. 이 시기 전국적으로 의용군 모집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보령지역도 예외없이 같은 시기에 많은 인원이 강제로 징집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황의호, 「1950년 주산전투에 관하여」 『보령문화』 14집, 보령문화연구회 2005.

이선행,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에 대하여」 『보령문화』 14집, 보령문화연구회 2005.

최철한·황의호 「내가 겪은 6·25(이향우)」 『보령문화』 7집, 보령문화연구회 1998.

3. 대한민국의 발전과 보령

1) 대한민국의 발전

한국전쟁으로 국민으로부터 실망을 받게 된 이승만은 자유당을 창당하고 발췌개헌안 사사오입개헌안을 통하여 장기집권을 획책하였으나, 1960년 3·15부정선거로 말미암아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 정권은 붕괴되었다. 보령에서는 1958년 이승만 장기집권이 정점을 향해 달리는 시기에 치러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원장(李原長) 후보가 2대·3대 무소속으로 내리 당선되었던 민주당의 김영선(金永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4·19가 있는 지 3개월 만에 제2공화국 출범을 위한 총선이 1960년 7월 29일 실시되었는데, 공명하게 진행되었다. 보령에서는 민주당의 김영선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내각 책임제에 따라 국회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장면이 국무총리로 지명되었다.

국민의 여망에 의하여 탄생된 민주당 정권이 정치력 부재로 말미암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을 때 군부에 의한 정변이 일어났다. 5·16군사정부 시기에는 군수·면장·지서장을 군인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군사정부는 1962년 7월 제3공화국 새 헌법을 만드는 헌법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1962년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였다. 1963년 11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령은 서천과 함께 충남 제6지역 선거구로 선거구가 조정되어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김종갑(金鍾甲)이 당선되었다. 이어서 제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공화당의 이원장(李源長),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종성(崔鍾聲)이

당선됨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계속 여당 의원이 당선되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으로 독재의 길을 걷다가 1979년 10·26사태로 무너지고, 12·12 및 5·18의 바탕 위에 제5공화국이 들어섰으나 민주화운동 탄압과 부정부패, 비리로 인하여 국민의 심한 저항을 받았다. 유신 이래 최초의 대통령 직접선거에 의한 1988년의 6공화국을 거쳐 1993년에는 30여 년 만에 문민정부가 수립되었고, 1998년에는 선거에 의한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여 왔다.

보령은 1963년 1월 1일 법령 제1177호에 의해 대천이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였다. 1950년대 이후로 활발해진 성주산의 탄광 경기에 힘입은 바 컸으며, 서해안의 장항(1936), 예산(1940), 광천(1942)보다는 늦은 것이었지만, 급속히 성장하여 드디어 1986년 1월 1일 대천읍이 대천시로 승격되어 보령군에서 분리되었다. 그러나 1995년에는 다시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 보령시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만세보령의 고장

오늘날 만세보령(萬世保寧)이라는 용어는 우리 보령의 지역적 상징체(symbolic identity)이자 정신적 지주 언어로 널리 쓰여지고 있다.

萬世保寧 용어의 유래는 고려시대부터 있어온 용어라고 알려져 오기도 했으나, 사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萬世保寧이라는 용어가 우연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보령은 예로부터 ‘萬世保寧의 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인 것이다.

萬世保寧이라는 뜻은 ‘편안함을 보전하며, 대를 이어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대를 이어 살아가는 땅’이라는 의미이다.

조선후기 우리나라 최고의 지리지인 실학자 이증환의 《택리지》에는 “보령은 모두 대를 이어 사는 부유한 집이 많으며, 바다 모퉁이의 궁벽한 지역이므로 난리가 들지 않아 가장 복된 땅이라 일컫는다.”라고 하여 보령을 ‘가장 복된 땅’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실학자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도 택리지와 똑같은 소개와 함께 “청라동의 20여 리는 오서산록의 일부인데. 포구의 물이 마을까지 들어온다. 조수를 따라 조개와 전어 기타 해산물이 들어오면 부녀자와 아이들은 이를 채취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해물과 소금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 이곳은 가히 은거지(隱居地)를 이룬다. 청라동의 바깥에는 논밭이 많이 있다. 연료도 멀지 않은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어염(魚鹽)으로 쉽게 무역을 할 수 있으며, 어염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

따라서 생리(生理, 사람이 생활해 가는 원리)가 넉넉하다”라고 하여 우리나라 유명 실학자들이 한결같이 보령은 대를 이어 살아가기가 좋은 땅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만큼 예로부터 보령은 살기 좋은 땅이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 보령현의 생원·진사시 합격자 수는 충청도 54읍 중 6위이며, 전국적으로는 372개 군현 중 36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바다 모퉁이의 현(縣) 단위 작은 행정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합격자수가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은 실제로 사대부들이 이 지역에서 대를 이어 거주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그 이유는 사람 살기가 좋은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에 들어와서도 일본인들이 조사하여 기록한 《조선산업지》에도 “보령의 대부분은 바다와 접해 있어 섬들이 많고 어장이 많으며, 비록 넓지 않은 평야지만 수리 관개가 편리하여 그다지 가뭄의 피해가 없고, 토지는 대체로 비옥해서 농산물과 수산물이 풍부한 천혜의 고장이다”라고 하고 있으니 대대로 사람이 터전을 잡고 오래도록 살아갈 만한 천혜의 복지였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따라서 옛 기록에 萬世保寧이라는 구체적 용어는 없지만, ‘대를 이어 편안함을 보전하며 살아가는 땅’이라는 의미의 연원은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저술인 《택리지》와 《오주연문장전산고》, 최근의 《조선산업지》 등에서 한결같이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이어오는 萬世保寧의 뿌리 전통을 바탕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영원무궁한 복된 땅 萬世保寧〉이라는 지역정신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며, 정주(定住) 의식과 애향심, 공동체 정신과 대동단결을 위한 확고한 정신적 지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만세보령은 보령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991, 『보령군지』

1995, 『대천시지』

황의천, 「만세보령의 의미와 유래에 대한 고찰」 『보령문화』 15집. 2006.